

오순절 후 열세 번째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13TH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0년 8월 30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새 28)	인도자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35 번 이사야 (Isaiah) 35 장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 장 “세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김강석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히브리어(Hebrews) 11:20-22	윤홍준 집사
설 교 Sermon	“ 믿음으로 축복하고 경배하였으며 (Blessed and Worshiped by Faith) ”	김일선 목사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특송: 윤홍준 집사, 반주: 고혜정 집사)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 317)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495 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새 438)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각자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고 성경은 말씀하지만,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르며 선을 추구하기 보다는, 우리 욕망을 좇으며 생각 없이 죄에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과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진정 구하오니, “주의 인자를 좇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우리의 죄과를 도말하시며,”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롬 16:19 하, 시 51:1,10)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한글개역 **히11:21**)

“By faith Jacob, when he was dying, blessed each of Joseph's sons, and worshiped as he leaned on the top of his staff.” (NIV **Hebrew 11:21**)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8/30 (주일)	8/31 (월)	9/1 (화)	9/2 (수)	9/3 (목)	9/4 (금)	9/5 (토)
본문	삼상23	삼상24	삼상25	삼상26	삼상27	삼상28	삼상29,30
	고전4	고전5	고전6	고전7	고전8	고전9	고전10
	겔2	겔3	겔4	겔5	겔6	겔7	겔8
	시38	시39	시40,41	시42,43	시44	시45	시46,47

수/요/성/경/공/부 토/요/새/벽/기/도/회

수요 성경공부 (9/2수 오후7:30)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민 24:10-25)
토요 새벽기도회 (9/5토 오전6:30)	“여호와여 어느 때 까지니이까” (시 61-10)

지난 주일(8/23) 말씀

“시험을 받을 때에”(히 11:17-19)

오늘 본문의 배경인 창세기 22장에 묘사된 하나님의 모습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믿고 따랐던 하나님이 아닌, 전혀 다른 하나님, 완전히 낯설고 생소한 하나님처럼 느껴집니다.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아브라함은 그저 침묵합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하고 있지만, 이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인데, 1)첫째는 우리도 분명 시험 받을 때가 있다는 사실이며(히11:17), 2)둘째는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일수록, 더욱 영적으로 민감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며, 3) 셋째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해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히11:18-19). 즉,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나고, 그래서 미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보았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남아 있지 않는다고 해도, (그래도) 과연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지? 를 하나님께서는 시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하나님이기때, 우리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순종하는 귀한 믿음이 더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메/모